

[로스쿨 소식]

1분 남았는데..., 종 친 변호사 시험

- 법무부 직원 실수로 조기종료 -

지난 1월 13일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시험 종료 시간 1분 전 종료 벨이 울렸다. 이에 따라 일부 수험생이 “답안지 마킹을 미처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항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로스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에서 종료 예정 시간 1분 전인 오전 11시 59분에 시험 종료 벨이 울렸다. 이 시험 과목은 변시 수험생 전원이 봐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객관식 문제 70개로 이뤄져 있다.

개인 시계와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1분 먼저 벨이 울렸다.”며 항의해 일부 고사장에선 시간을 더 췌다. 하지만 대부분 고사장에선 시험 감독관들이 종료벨이 울리자마자 답안지를 걷어 갔기 때문에 OMR카드 마킹을 다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속출했다. 이날 한양대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다음 날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위해 충분히 항의하지 못했고 본부 측으로부터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법무부 직원이 시험 시작·종료 벨을 수동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고 당일 시험본부를 방문해 인적 사항을 기재한 학생들에게 ‘피해 상황 접수를 위해 법무부를 방문해 달라’고 전화 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시험은 건국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충남대학교·한양대학교 등 5곳에서 치러졌고, 한양대학교에서만 시험이 1분 빨리 끝났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전체 3306명의 변시 수험생 가운데 706명이 배정돼 시험을 봤다.

(조선일보 인용)